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제1독서 : 신명기 30, 1-5
 제2독서 : 에 페 4, 29-5, 2
 복 음 : 마 태 8, 19-22

순정이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 주실 것이다”(마태 18, 19).

우리교회 - 교회다운가?

다음은 5개 본당의 15세-30세 사이의 젊은이들의 수계 생활여부에 관한 참고 자료이다.

■ 15세~30세 교적상 교우수 수계와 비수계

본 당	교적상수	신 사 수	성사안본 신자수	성사안본 신자%	성사안본 신자%
전주 전동성당	1,203	586	617	48.7%	51.3%
군산 둔율성당	700	439	261	62.7%	37.3%
이리 청인성당	378	257	121	68%	32%
전주 효자우전	298	149	149	50%	50%
전주 서신성당	200	103	97	51.5%	48.5%

즉 15세-30세 사이의 젊은이들 44.8%가 냉담자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원인은 시대의 변천에 따른 의식변화일 것이다. 현재 젊은이들은 부모가 신자라고 자식까지 신자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냐고 강하게 반발한다. 남편이 신자이니 아내가 따르고, 아내가 신자이니 남편이 따르며, 친구따라 성당엘 다니는 식의 사고는 이제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 외부적인 요인덕택으로 주일학교, 학생회를 거치면서 첫 영성체, 첫 고백, 심지어 견진성사까지 받았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교회에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끝까지 교회에 머물게 하지는 못한다. “믿으면 천당간다” “성당다니면 복받는다” 등의 얘기들은 이제 아무 의미없는 빛바랜 말마디가 되고 말았다.

“나의 이 신앙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처절한 회의와 방황을 거치면서 “그렇다 나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라는 확신이 없이는 자연히 신앙인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해왔고, 또 하게될 신앙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속해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일 것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의미있는 공동체라고 인정될 때 비로소 자신의 삶 역시 그 공동체와 함께 의미있는 삶이라고 믿게 되고 그 의미있는 삶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교회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가?

70년대, 교회의 ‘사회 참여’에 감명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교회로 몰려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중 대부분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비전도 제시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었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래 사명에 충실하기보다는 안정된 교회 조직의 운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혼이 없는 육체는 시체일 뿐이듯이 근본 정신이 흐트러진 교회 제도와 조직 그리고 건물은 그저 껍질일 뿐, 구원도 생명력도 없다. 그저 하나의 단체일 뿐이다. 일년 예산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조직과 제도, 건물 관리비에 소모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 어떤 의미를 발견하겠는가? 교회가 주장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언제 어느때 피부로 느끼겠는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되찾기 전에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유럽의 교회처럼, 성전들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휴식처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우리 교회 정말 교회다운가? ‘사랑’이신 하느님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교회인가?

교회와 청소년



정두희 (스테파노)

벌써 유월이 다 지나가고, 머지않아 7월이 되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여름 방학을 맞게 된다. 으레 이때가 되면 교회에서는 방학 중의 하기 교리 및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와 종교생들의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에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처럼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중행사를 눈앞에 두고, 이를 지켜보는 나의 심정이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에서의 청소년 교육이 얼마나 질적으로 발전하였던가? 방학 때마다 되풀이 되는 하기 교리와 수련회는 어떤 발전을 하였던가? 이처럼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하여 자신있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청소년 교육이 얼마나 발전하였던가?

잘못된 교육정책과 이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정서를 함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이런 문제는 교회가 나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만이라도 우리는 진정한 관심을 기

울인 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사실 늘어나고 있는 성인 신자들을 잘 돌보기도 힘에 부친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청소년 문제는 일단 옆에 제껴둘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라나는 이들 청소년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앞으로 이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이들 청소년들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그들의 고유한 인격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자라나는 이들 청소년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더욱이 불과 10년, 20년 내 이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어려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교회 이들의 진정한 교육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야만 한다. 앞으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현재 곳에서 웅장하게 들어서고 있는 당에 빈자리가 늘어나고, 미사 참여하는 신자들은 더욱 고령되어 교회 내에 젊음의 활기 없어지게 되는 사태가 결코 없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전북대 교수>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대부분 본당의 주일학교 및 중·고등학생회가 여름방학을 이용한 야외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캠프를 준비하는 본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볼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여름철 청소년 수련장, 가볼만한 곳

*부안솔섬

- 부안군 산내면 도청리 도청국교
- 숙영지, 물놀이장소(해변가)
- 부안에서 도청교행 버스 이용

*동계(순창)

- 잔디밭, 물놀이, 백사장, 운동장시설
- 오수에서 동계행버스 이용

*압록(전남 곡성군 압록)

- 숙영지, 백사장, 물놀이(그늘없음)
- 압록까지 기차이용

*심원마을(지리산)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심원마을
- 숙영지, 수영(물놀이), 경치수려
- 달궁까지 교통편 이용

*무주 뒷섬·앞섬

- 숙영지, 경치수려, 물놀이(흐르는 물)
- 무주에서 버스이용

*내변산(중계)

- 숙영지, 모래사장, 물놀이장소, 경치수려
- 부안에서 백천대행 버스 이용

*상록해수욕장(부안)

- 신설해수욕장, 사람치고 물 맑음
- 부안에서 버스 이용

*진안 냉천

- 숙영지, 물놀이 장소(수심 얕음)
- 중길리행 버스 이용

*사선대(관촌)

- 숙영지, 운동장시설(잔디구장), 물놀이 수도시설 및 위락시설
- 관촌행 버스이용

특집좌담회

냉담자 대학생 85%, 고등학생 60%, 중학생 40%, 국교생 20~15%

청소년, 왜 교회를 떠나는가?

참석자

*가나다순입니다.

- 박교선 (금암동 교리교사)
- 박마리아 수녀 (노승)
- 이정명 (신동, CBS아나운서)
- 정용태 (학생연합회 부회장)
- 한규석 (해성고 교사)

사회: 현 유복신부(교육국장)

일시: 89년 6월 14일 오후 8시
장소: 교구청 홍보국장 실

신앙문제라 할 교회에 무관심하는 일이나 헌금도 잘 내지 않는 건 신앙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더군요.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청소년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 하는 문제의 답은 그들이 교회를 짐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까이 갈수록 얻어지는 바가 있고 인격적 도움이 커야 할텐데요.

박마리아 수녀: 학생들과 지내면서 보니 그들이 교회에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즉, 교회에 와 있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압박의식이 그렇고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이겨 미사에 나와도 말씀과 전례가 살아있는 체험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교공부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교회를 등지게 되는지를 알고 싶군요.

사회: 전주 시내 사목방문 통계를 보면 교회에 나오는 국민학생이 교적수의 80%, 중학생이 60%, 고등학생이 40%, 대학생이 10~20%로 상급학교에 올라갈 수록 탈교회 현상이 눈에 %니다.

박교선: 어른들은 삶의 재미를 나름대로 찾아 살지만 학생들은 얽매어 삽니다. 맺힌 걸 풀고 놀린 것을 풀 수 있는 통로가 교회에 있다면 문제는 없어지겠지요.

한규석: 사실 학생들은 과중한 학업에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도 빼앗기고, 부모 또한 미사참례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복잡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

다. 될거라고 봅니다.

이정명: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학교교육은 지식위주이지만 가정 공동체의 영향은 청소년에게 절대적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니 까요.

박교선: 가정은 신앙교육의 모체, 인성교육의 뿌리가 돼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체험하지 못하면 정서교육이나 종교교육, 학교교육도 실패한 것이라고 해야겠지요.

정용태: 저도 어머니께서 새벽에 밥지으실 때 밥술에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한규석: 저는 교회안에 올바른 교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년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만 주로 대학 1,2학년생들이어서 이들도 청소년기를 막 지나온 처지라 교육적 소양이나 기술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회: 실제로 본당마다 지도교사 할 사람이 없어서 자질을 키울 길도 막연하게 사실입니다. 또, 교회는 젊은이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귀 기울이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교회의 투자도 요청되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정용태: 사회의 가치관혼란이 저희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큼니다. 신앙의 옳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어른들도 잘 모르기 때문인지 명료하게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사회: 이제 우리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교회는 이제껏 청소년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당 건물이나 외부적인 일들에 불만이 있을 때는 금방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만 청소년들의 필요에는 둔감해 왔습니다.

한규석: 본당마다 공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로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만 앞으로는 본당 사목 방향에서 특별히 청소년 분야에 눈을 돌리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태: 네. 그래요. 어른들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의 문화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사회: 교회의 역할은 여러가지겠지만 그 가운데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목상하면서 우리도 청소년 사목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자주 갖고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연구, 전문적인 모임과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면 싶습니다.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어른들만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의 문화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쫓기는 듯한 그들의 삶에 교회가 돌피구를 찾아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걸으려는 발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안고 삽니다.

이정명: 청소년들이 중·고·대학시절을 통틀어 어느 때 더 많이

사회: 그럼 이젠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자리인 가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규석: 제 어린시절을 돌이켜 보면 부모님의 영향이 큼니다. 제 경우는 저녁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 아이들이 으레 기도하는 걸로 알고 매일 따라합니다. 부모들이 기도생활을 좀더 모범적으로 이끌 때 자녀들은 다르게

전문적인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교육과정도 잘 짜여져서 체계적으로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명: 네,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박교선: 교리교사들의 자질향상이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본당에서 20세 초반의 대학생들이 청소년

어른들만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의 문화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쫓기는 듯한 그들의 삶에 교회가 돌피구를 찾아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걸으려는 발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안고 삽니다.

이정명: 청소년들이 중·고·대학시절을 통틀어 어느 때 더 많이

사회: 그럼 이젠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자리인 가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규석: 제 어린시절을 돌이켜 보면 부모님의 영향이 큼니다. 제 경우는 저녁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 아이들이 으레 기도하는 걸로 알고 매일 따라합니다. 부모들이 기도생활을 좀더 모범적으로 이끌 때 자녀들은 다르게

전문적인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교육과정도 잘 짜여져서 체계적으로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명: 네,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박교선: 교리교사들의 자질향상이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본당에서 20세 초반의 대학생들이 청소년

위상양 내과 의원

위상양 (프란치스코)
김병희 (골라라)

전주시 교사동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앞)

☎ 병원 4-1225
☎ 자택 75-0034

(보건사회부 허가 제210호)
맥코이 이온정수기
-수도직결 순간 이온정수기-

“맥코이 이온정수기가 만든 알카리성 칼슘 이온수는 맛있는 물, 살아있는 물, 의료효과가 있는 물.”

KBS-2TV: 월~금요일 아침8시30분 생방송 (전국은 지국에 TV광고 중)

(주)모리아크리스탈전북사업본부
사업본부장 서동주 (스테파노)
전주시 금암1동 706-4
(합동시외버스터미널 산다방 2층)
☎ 75-1654, 77-4312

* 교육상담 및 문의전화 환영
* 직원모집: 남녀 부녀사원 계속 모집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전주오거리(신) 서강정형외과 앞
(구)나정형외과

☎ 74-1123.3-6709

생산직 사원모집

- 인원: 00명
- 자격: 가) 학력제한 없음 나) 만16세이상 24세미만 여성
-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나)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기간: 1차-89.6.26~89.6.30 까지 2차-89.7.1부터 수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room의 배리어며 토요일은 오후 1시 까지입니다.

R-F High Teck. 루트전자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1566-3
☎ 5-3697

〈진료과목〉

내과 · 외과 · 소아과
산부인과 · 피부비뇨기과
물리치료

서울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이상재**

전주시 덕진동 1401-19(덕진광장앞)
☎ 75-0550, 0551

조용히 이웃사랑의 참뜻 새기는 부부

— 서교석(세자요한) · 유희순(도미니카) —

입으로 큰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날로 황폐해져가는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도 주님이 이르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이웃사랑의 참뜻을 실천해 가고 있는 부부가 있다.

全州시 松川동 비사벌아파트 俞姬順(30. 마리아 도미니카) 徐敎錫(33. 세자요한) 부부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22평 아파트에서 4명의 농아와 함께 기거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들중 全州고등공민학교에 재학중인 3명의 남학생들은 群山명화학교시절 남편의 제자이고, 全州선화학교에 다니는 한명의 여학생은 아내 俞씨의 제자이다.

이 제자들을 부부는 각자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맡아 보살펴 왔다.

바로 이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두 사람은 너무나 공동된 점이 많다. 우선 농아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그렇고 하느님께 대한 깊은 경애심이 그러하며 또 자신들의 선행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여 한사코 내세우려들지 않는 점이



그렇다. 하지만 이처럼 꼭 닮은 두사람이 서로 만나서 같은 길을 걷는 부부가 되기까지는 남다른 우여곡절이 있었다.

徐씨와 俞씨의 인연은 지난 83년 봄에 시작됐다.

당시 단국대 특수교육과 졸업반이던 徐씨와 大邱大 같은과 졸업반이던 俞씨는 서울 구화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며 처음 만났던 것.

자신도 농아의 처지로서 같은 처지의 학생들에게 유난히 애정이 깊던 徐씨의 모습이 이때 俞씨에게 썩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나 그 이상 별다른 감정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그것이 아니었던듯, 두사람은 이듬해인 84년 群山농아학교(現 명화학교)의 동료 교사로서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민학교 6학년 당시 뇌막염으로 청력을 상실한 徐씨가 정상인도 못따라갈 만큼 진지하고 치열하게 세상을 살

아가는 모습이 俞씨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거기서 두 사람의 사랑은 짙고 마침내 85년 군산 팔마성당에서 관면혼배성사를 치름으로써 열매를 맺었다.

당시 俞씨의 부모가 들의 결혼을 끝내 반대하지 못한 데는 오랜 가톨릭신앙에서 오는 영향이 컸던 듯 싶는데 부모들은 「젊은 사람들 가슴에 못 박을 수 없지」라며 당신들의 뜻을 굽혔던 것이다. 그로부터 햇수로 5년, 젊은 부부는 서로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물론 그간의 세월 가운데는 어려움도 많았으나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오늘의 참 행복을 쌓아올릴 수 있었다.



요십이(829) 김병오

“물가는 올라가고...
노사분규는 심각하고...
부동산투기를 앞둔 사람들이
못난놈이 되고...”

“여자들은 남자를 향해 당하고
청소년 범죄는 흉폭하게 되고
농촌 출구는 갈수록 좁아지고...”

“대학생은 평양에 간다고...
공권력은 힘이 없어졌고...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이 없고...”

청와대 “정치를 하는게요?
안하는게요?”

⊕ 의족이 있는 곳에 믿음

산중으로 숨어들어 집단촌 이룬 — 이은동 성당



우리 교회의 초기 지역은 대부분 심산공곡이었다는 건 앞에서 여러번 얘기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순조·칠중·고종 연간에 박해를 피해 산중으로 숨어들어 교우들의 집단

성당(현재는 공소)도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鎭安읍에서 長水방면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깊숙히 들어 앉은 이은동 공소는 그런 의미 말고도 성인 이명서의 무덤이 자리한 곳으로도 유명하다(현재는 천호성지로 옮기고 그의 가묘와 가족 무덤이 있다).

주민 대부분이 산비탈에 고냉지 채소를 심거나 한봉을 치면서 근

에 주재하면서 그 이듬해 성당을 세우고 학교를 지었다. 물론 성당이 서기 전에도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신자들은 그대로 신부를 모셔오거나 혹은 인근 지역에 나가 미사와 기도를 계속했다.

성당이 비록 조선식 기와집이었으나 당시 형편으로는 심산공곡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高樓巨閣이었다. 특히 학교가 없었던 그 시대 산촌에서는 이 학교가 유일무이의 문화전당이요, 최고 학부였다.

여기서 배출된 인물들이 후에 교회와 사회에 많은 이바지를 한다.

1915년 金신부가 제주도로 전임되어 3년간 공석이였다가 경남 함양교회의 이발도로메오 신부가 겸임했고 1918년 이 신부가 2대 주임으로 부임한다.

1921년 이신부가 전임. 공석이 되어 한달본당에 속하기도 했다가 1947년 11월 25일 3대 宋요셉(南浩)신부가 부임, 현재의 사제관을 준공했다.

6·25동란을 만나 그후에는 본당이 폐쇄되어 진안읍 교회의 소속공소가 됐다.



현재의 이은동성당

촌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성전이 먼저 세워지는 곳은 그런 지역이었고 오히려 교우들이 많고 경제적 富가 있는 도시 지역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진안군 진안면 죽산리 이은동

근히 살아가고 있으나 그들의 하느님말을 향한 신앙심은 어느 곳에 못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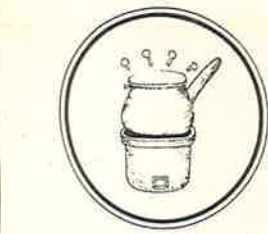
이은동 공소는 1900년 9월 22일 김스테파노(洋洪)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 사도회 합회장집

교구소식

1. 혼인강좌: 6월25일 장소-가톨릭센터 오전9시30분 *7,8월은 더위 때문에 쉽니다. 차기혼인 강좌는 9월24일에 있습니다.
2. 북한청소년들에게 보내는 글 공모전: 전주교구 청소년 성체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6월을 '사랑의 달'로 정하고 북녘의 교회와 민족통일을 위해 기도하고자 '북한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공모합니다.
* 주제: 북한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 대상: 중·고등부 학생 시상-대상1명,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 장려상3명 * 제출처: 우편번호560-090 전주시 서노송동560-6 청소년 성체대회 준비위원회 앞 후원-가톨릭신문 전주지사 마감-6월30일 발표-7월중 빛따라 * 당선작은 교회 홍보매체에 실리게 되며, 전주교구 청소년 성체대회 공식메시지로 사용합니다.
3. 축! 영명: (성베르로, 바오로) 29일 서석기, 김병엽, 김영신, 박창신, 엄기봉, 문규현, 이순성, 김희남, 박인호, 정양현, 방의성 신부님
4. 가톨릭방송안내: CBS라디오 월요일 아침8시「5분칼럼」, CBS 월요일-토요일 「오늘을 보내며」 저녁11시45분-12시 MBC 라디오 일요일 저녁10시25분-30분사 「일요명상」
5. 성소피정안내: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7월15일 16:30-7월17일 13:30 장소-수원(본원) 접수마감일-7월10일(경기도수원시지민인계지구46블록1로트) Tel(0331)46-0241 회비500원

성체성년 상설고백소 설치

- 매주 금·토 오후 3시~5시 가톨릭센터(제의실)
- 금요일 오전10시 30분~12시 치명자산



연수당한의원

한방 내과, 부인과, 침구과 물리치료

한의사 서용배 (프란치스코) 박경자 (올라리)

전주시 다가동 1가 76-3 (황외과 옆)

☎ 83-6636, 6637

천연 진주상과 14K로 만든 성체 대회 기념성물

- 예수상, 성모상, 교황상 진주목걸리 3 종류
- 비둘기상, 물고기상 진주에 큐빅 장식 반지와 목주 반지 2 종류
- ※ 공신품이 아니므로 한정된 숫자에서 주문 판매합니다.

○ 접수 기간: 1989.6.24~7.9까지

○ 주문 장소: 전동 천사의 집 성당 성물 판매소

○ 공급처: ● 디니엘물산(주)

서울·미포구 공덕동 257-3 제성B/D 103호 ☎ (02) 02-718-0121

사랑의 술(酒)

좋아서 한잔!
싫어서 한잔!
그러나 의미있는 한잔을 권합니다. 금번 농촌을 위한 원평성당 성모(무료) 유치원 기금마련을 위한 「사랑의 잔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많이 와 주세요.

일시: 1989년 7월 7일(금)~9일(일)

장소: 카이저호프 (전주: 한성여관사거리)

본 호프 (군산: 시청 사거리)

카이저호프 (이리: 이리역 앞)

주관: 원평성당 사목회

일분명상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의 이익을 위하여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다.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고 있음을 보는 일보다 은안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달란트의 비유를 상기해 보라. 주님은 수건에 싸 둔 금화를 보기 싫어 하신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G. 푸르두아

명동피부과의원

공소가 죽어가고 있다

— 도시본당과의 자매결연을...

■ 공소와 자매결연...

세울이 흐를수록 교회는 커지고 있다. 건축으로보다 신자 수로 보다 마음 뿌듯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 더구나 공소 신자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는 도시의 신자들은 극히 드물다. 공소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가 일쑤다. 공소는 각구역 본당내의 작은 교회단위를 의미하기에 그 본당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지도받게 되므로 타 지역, 타 본당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자기본당 살림에만 급급한 도시신자들..... 어려운 공소 살림에도 눈을 좀 돌리자. 작은 공소장당, 빈약한 전례용품, 돈에 들어오는 것마다 도시의 번영이 성당 내부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이런 속에서도 열심한 공소 신자들의 순박함에 우리가 숙여진다. 교회가 성장한

만큼 신앙이 커졌다면 그 열매인 나눔도 커져야 한다. 우리 전주 교구에 공소가 191개나 된다. 자매결연이라도 맺어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를 실천할 수는 없을까?



■ 내 집 청소처럼 성당 청소를...

성전은 주의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성당안의 구석구석에 눈길이 갈 때마다 눈살이 찌푸러진다. 휴지가 굴러다닌다거나 구겨진 숲정이가 구석에

쑥셔놓여져 있고 뭉치가 된 먼지 덩어리가 이곳 저곳 갈 곳을 잃고 발길에 채어 굴러다닌다. 요즘 몇군데 성당을 우연히 들를 기회가 있었다. 시내에 멋들어지게 지어진 성당들은 한결같은 사정이었다. 오히려 농사일에 바빠 청소할 틈도 없을 농촌 산골 공소가 훨씬 더 깨끗했다. 가지런히 한구석에 쌓이는 방석하며, 단정히 포개놓은 빛바랜 성가책과 기도서들. 열심히 뒤야 윤이나는 공소 마루바다. 예수님은 호화스러우나 지저분한 성전보다는 낫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쓰다듬어 주는 사랑의 손길이 닿는 가난한 성전을 더 만족해 하실 것 같다. 숲정이의 본당 소식마다에 이 주일의 성당청소 당번이라고 보무도 당당하게 알릴 글이 나오곤 하는데... 정말로 내 집이라면 얼마나 쓸고 닦겠는가? 감실 안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알고봅시다

비디오 - 성 김대건 -

한국 교회의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역사적인 고증을 곁들여가며 극적으로 전제시킨 영화이다. 신자들의 재교육 등이나 예비신자들에게 성인 김대건 신부님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영화이다.

- 대상: 예비신자 · 60분컬러VHS 20,000원, 대여 2,000원
- 취급처: 교구청 홍보국, 성바로 서원.

— 전주교구 시복시성운동 —

동정부부 순교자(이루갈다, 유요한) 현양을 위한 문예 현상공모전(고료 200만원)

- 모집부문: 시-(편수, 매수 제한 없음)
- 수 필: 원고지 15매 내외
- 단편소설: 원고지 100매 내외
- 마감: 1989년 7월 31일
- 접수처: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85-0041~3

숲정 이 산책



“평화와 민주화를 위한 기도”

◇...유월 초, 언론의 통기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중국의 민주화 열기는 결국 무력에 의해 폭압적으로 진화되었는데.

뒤가 구렸는지 각 언론매체들은 경쟁적으로 남의 나라 일에 신나게 열을 올렸지만, 글썩요. 중이 제 머리 못감는다고 괜히 남대문 가서 눈 흘기는 꼴이 아닌지.

자. 우리 주제를 좀 냉정히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목상합시다.

◇...문익환 목사님에 이어 우리 교구의 문규현 신부님이 평양을 방문하셨는데, 제 아무리 가로막아도 질기고 질긴

신앙의 힘으로 성원해야 할 때입니다. 「장한 일 했지」라고 말씀하시는 문신부어머님의 마음과도 같이.

◇...6·29 두들, 최근 그 위대한 영단을 두고 서로 누구의 창안이라고 공로 설이 무성할때, 이제와 보니 그 것이 무슨 탁월한 업적인 양 느껴지는 모양이지만 2년이 지난 이 마당에 「육이구」든 「속이구」든 눈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무슨 치졸한 말장난 들일까. 이래저래 불쌍한 건 바로 그 사람들 뿐.



동족의 끈끈한 사랑만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모두 문신부님의 성공적인 북한 방문과 통일의 다리놓임을 위해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p>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인 석 수녀원 82-9662</p> <p>● 본당신부님 영명축하식: 7월2일 공식미사후 축하연 없음 초·중·고 교리교사 하계연수회: 초등부26일-29일 중등부30일-7월3일 장소-송광사 2야영장 2. 성령기도회: 29일(목)8시 미사후 특별강론 3. 남성L.M단합대회: 7월17일(일) 9:30 장소-완주군동상면수만리 참가비5,000원 준비물-미사도구 신장마감 7월2일까지 4. 황금금전Pr 단합대회: 29일(목)10시 장소-동상면 5. 반희장 객질 인후7반: 김종례(엘리사벳) 축 수연 최복례(세브란시아)집순미사: 25일(일)11:30 장소-백번집 축 회갑미사 노광열(공사가): 7월2일(일) 12시 장소-탈상미사: 7월1일(토)11시 박인태(노현조) 장소-다리리 은인께 감사: 제대회 성반도금 어린이 첫영성체반 신축헌금137,000원 □지남주봉헌금: 657,650원 □교무금: 460,000원</p>	<p>*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84-2276</p> <p>● 오늘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1. 회의: 꾸리아 야의모임-오늘 공식미사후에 2. 알림: ①29일(목)본당신부님(서석기, 베드로)영명축하! 많은 기도바랍니다. *축하식은 7월2일(일)공식미사후에 있을 ②오늘은 교무금 6월분 납부의 날입니다. 신자들의 많은 협조를! ③성체대회 기념벤티대금 미납자는 6월말까지 완납바람 ④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신자분께서는 성체대회기념 스티카를 필히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판매하고 있음 ⑤초등부 교리교사 하계연수회-6월26일~6월29일까지 ⑥중등부 교리교사 하계연수회: 30일~7월3일까지 장소-송광사 제2야영장 □지남주봉헌금: 458,700원 □교무금: 436,000원</p>	<p>*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환 수녀원 87-0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꾸리아회의: 오늘 오후3시 2. 시복회: 7월1일 오후8시(사제관) 3. 첫영성체 및 초등부 영세자는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4. 청년 기타반 모집: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후 5. 본당여름피켓: 7월25일(수) 28일까지 6. 신축금집자: 이계영 50만원 7. 울전기금모금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금주전례: 해설-정순태 복사-윤인홍 장현주 봉헌-김형문 부부 차주전례: 해설-함문권 복사-장수중 황의동 봉헌-이원규 부부 <p>□지남주봉헌금: 346,340원 □교무금: 370,000원 □자선헌금: 31,910원 □신축금신입총액: 147,119,836원 □울전기금신입총액: 3,490,000원</p>
<p>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균 수녀원 86-3454</p> <p>● 평신도강론: 유대식(세바스찬) 회장단회: 오늘 저녁미사후 삼회: 오늘 오후2시 영세예정자 집중교리: 26~7월1일 오후8:30 성체강론: 7월1일 저녁미사후 교황주일 2차헌금: 7월2일 사목회: 7월2일 저녁미사후 대건회: 7월2일 공식미사후 영세식: 7월2일 공식미사중 금주전례: 해설-곽육남 독서①오장수 ②정장선 봉헌-오장수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장기연 ②이주자 봉헌-장기연씨 부부 □지남주봉헌금: 91,930원 □교무금: 248,900원</p>	<p>*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황 희 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목회장 선출: 오늘 공식미사중 2. 막달레나회: 오늘 공식미사후 3. 제대 꽃 봉헌 모임 가입신청 비람(사무실): 신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선봉기봉헌: 17구좌 감사합니다. 5. 교무금 납부하여 본당 살림 도움입니다. 6. 꾸리아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후 7. 청소봉사: 6월25일~7월1일-안행동 <p>□지남주봉헌금: 314,570원 □교무금: 525,000원 □신축헌금총액: 12,810,000원 (입금액8,660,000원)</p>	<p>*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종 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p> <p>미사지향과 기도와 오늘 하루의 삶을 남북통일을 위해 바쳐드립니다.</p> <p>● 오늘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1. 축 성베드로와 바오로 대축일미사: 29일(목) 오후7시 3. 구역미사: 세경A 서편-금주 화요일(오후8시) 삼천주공2단지A-금주 수요일(오후9시) 4.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일요일-오전 9:30 수-오후7:30 5. 모임안내: ①사목회 상임위원회-금(후8시 사제관) ②파리마후 꾸리아-수요일 오전10:30 6. 청소담당: 월요일-꼬미씨음 토요일-꾸리아 소속된 구역형제 들은 모두 참여합니다. 7. 매주 수요일은: 가족미사의 날 8. 일상기도와 성경을 읽읍시다. 9. 성령기도회: 수요일 저녁7:30 10. 제2회 바둑대회: 일시-7월2일 오후1시 참가비5,000원 □지남주봉헌금: 590,390원 □교무금: 1,029,000원 □중고생헌금: 43,240원 □국교생헌금: 17,000원 □성체조배실, 진입로, 주방위한 건축헌금2차: 421,020원</p>
<p>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p> <p>● 축하! 영명: 세례자 요한-진심으로 축하합니다-신자일동 축하식-공식미사후 모임: 제대회-공식미사후 울뜨레아-28일(수) 저녁미사후 사목회월례회-1일(토)저녁미사후 꾸리아-차주공식미사후 교황주일: 다음주 2차헌금 성기정회 단합대회: 28일(수) 장소-임실삼계 봉헌: 금주-김단오 서병철씨부부 차주-남현준 안운기씨부부 목주기도봉헌: 금주1330단 누계5546단 *관심있는 봉헌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고생 학부모님께서는 교리시간에 학생들이 늦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오늘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2차헌금 있음 □지남주봉헌금: 218,690원 □교무금: 58,000원</p>	<p>*전동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 수 현 유치원 84-8347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 선 태 사제관 82-6232, 82-7245 사목회장 안 득 수</p> <p>● 성전보수 헌금 바랍니다. 1. 울뜨레아: 오늘 공식미사후(사제관2층) · 신임회장 이덕수씨 선입(전임회장 박순기씨 수고말이 하셨습니다.) 2. 꾸리아: 오늘 오후2시 3. 특별강론: 오늘 공식미사중 · 주제-성체와 통일 · 강사-양한 모화장 4. 제3차 계승별교육안내: 6월26일~29일 오전10시부터 시작 · 대상-30~40대 기혼여성(성모회 포함) 5. 돈보스코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6. 구역봉사자모임: 다음주 저녁7시30분(사제관2층) 7. 중학생교리: 매주 토 오후4시30분 많은 관심바랍니다. □금주보수비헌금액: 907,000원 □현제금총액: 32,136,210원 □금주보수비신입액: 1,533,150원 □현재신입총액: 168,569,150원</p>	<p>*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무 수녀원 87-07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 영명 본당 신부님 영명축하를 축하합니다. 축하식은 공식미사후에 있습니다. 축하연은 없습니다. 2. 돌담회 월례회: 오늘 오후6:00 3. 오늘은 2차헌금의 날입니다. 4. 반희장 반기도회 준비모임: 30일(금) 10:00미사후 5. 교무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6. 반미사: 27일(화)20:30동원반 28일(수)20:30 무궁화반 7. 의자헌금 미신입자는 신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차주모임: 요셉회 창립총회 이날 교황주일이므로 2차헌금 있습니다. *축! 혼배식사: 25일(일)13:30 전동성당 신랑-이영철 신부-유미정 <p>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조철인 ②손영순 기도-박영근 장정진 차주전례: 해설-한병갑 독서①강진상 ②정병순 기도-김창선 이금연 □지남주봉헌금: 392,670원 □교무금: 519,000원</p>